

清代龍袍紋樣小考

(國立歷史博物館所藏遺物을 中心으로)

李 康 七

目 次

머릿말

一、龍袍의 由來와 形態

二、紋樣에 對하여

가、龍文

나、八寶文

다、八仙文

라、海水薑牙文

마、吉祥文

七、雲文

八、萬字文

九、蝙蝠文

十、仙鶴文

口、火文

三、刺繡에 對하여

맺는말

머릿말

지난해(七七年)五月二十일부터二十五日까지 約六日間 首都女子師範大學博物館에서는 中華民國 國立歷史博物館(臺北所在)所藏品인 清代龍袍를 비롯한 宮中衣裳 數十點을 展示한 바 있다.

이 國際展示는 最初 韓·中兩國의 文化交流를 增進하고자 하는 眞意에서 首都女子師範大學의 周旋과 亞細亞太平洋地域社會文化센터 事務總長 李東煥博士의 協助로 結實이 맺게 되었는바 이는 同校 創立三十周年紀念行事와 더불어 實現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國立歷史博物館이 本土에서 그곳으로 移轉한 以來 海外展示로는 몇해전 日本에서 그 첫선을 보였고, 이어 이번이 두번째 成事시킨 行事였다. 더우기 本行事中 숨은 事實은 그 貴重한 遺物이 우리나라에 到着하고 또 展示가 끝나 다시 本國에 돌아 갈때까지의 모든 行政的인 手續節次와 費用은 모두 中華民國政府로부터 負擔하였던 事實이며, 아울러 同博物館 實務擔當職員二名까지 派遣하여 遺物을 開封하는데서부터 展示가 끝나 包裝櫃에 넣을때까지 異常의 有無를 確認하는 등 細心하게 關與하기도 하였다.

當時 同展示에 始終參與하였던 筆者는 計劃과 展示 그리고 包裝輸送節次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遺物 하나하나를 所重히 다루면서 깊은 觀察을 通해 많은 識見을 넓혔고, 또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이는 率直하게 表現해서 그곳 歷史博物館을 訪問하여 觀覽要請을 한다 하여도 遺物管理上 손을 대기란 想像도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이 方面에 진혀 門外漢인 筆者로서는 이에 對한 一般的인 常識이나 究明하고자 하는 眞意에서 其間 國立歷史博物館에 在職中인 研究組編輯 林淑心先生과 私立實踐家政專科學校 蘇月梅教授 등과 資料交換을 依賴하였던 바 快히 이에 副應하므로써 어느 程度의 輪廓을 把握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展示에 出品되었던 衣服全般은 너무나 그 範圍가 尠大하므로 其中

가장華麗하고 또한傳統을 자랑하는 清代 龍袍中 紋樣을 간주려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紋樣도 그 길이와 專門의 研究가 要求되는 까닭에 于先 其間 蒐集된 資料를 根據로 가장 基本的인 것만을 選擇하기로 하였다. 이는 오로지 清代宮中 衣展이 우리나라에서 施行한 것을 하나로 정리하여 보고자하는 微衷에서 敢히 試圖하였음을 序頭에 밝히는 바이다.

一、龍袍의 由來와 形態

中國에서 龍袍가 制度化되기는 이미 周나라 때 王公의 祭服인 袞衣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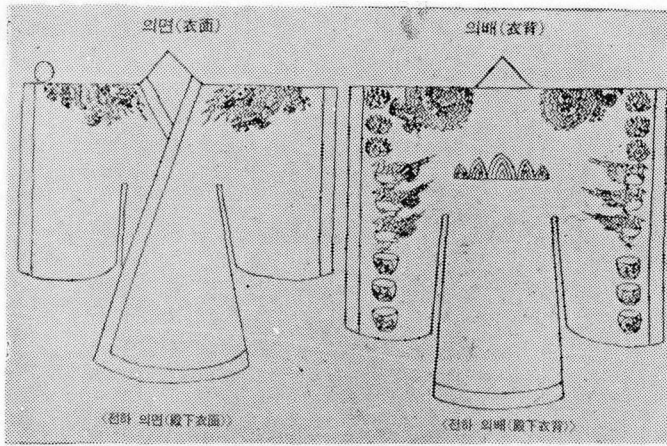


圖 1. 袞衣의 十二章文

부터 淵源한 것 이며 따라서 袞衣는 그 옛날 虞舞時代에 十二章服에서 비롯되었다고 한



圖 2. 唐高祖龍袍

다①. 이 十二章服이란 해(日)와 달(月)과 별(星辰)과 산(山)과 용(龍)과 평(華蟲)으로 무늬를 만들고 宗廟의 술 그릇(宗彝)과 물골(藻)과 불(火)과 흰쌀(粉米)과 보(黼)와 불(黻)의 무늬로는 繡를 놓아 입었던 것이다②. 더우기 龍袍란 龍紋을 主題로한 袍服으로서 千古以來 帝王의 服裝으로 專用되었는 바 이에 對한 歷代學者의 學說은 多少의 差가 있는 것으로 이는 「尊其神明」 「取其變化也」 「取其變化無方」 「取其能變化」 「神德神異、應變潛化、表聖王深識遠智、卷舒神化也」 「取其變也」 「龍以象其變化、以配天」 등으로 이를 綜合하면 龍德은 帝王을 象徵하며 아울러 龍德은 神、明、變이 세가지 特徵을 이르는 것으로 德이 있는 帝王은 見識과 智慧 그리고 機警은 普通사람과는 다른 것으로 모든 것의 觀現象 또는 潛在因數의 變化에 直面해서 自然에 適應하고 또한 神化하여 밝힌다는 것이다③.

또한 袍服이 創製되기는 누에를 치서 蚕絲가 使用됨과 아울러 着用된 것으로 이는 그後 殷나라 때의 甲骨文에서 絲網等의 文字가 보일뿐만 아니라 絲業과 織造技術이 發達되었음에서 立證된다는 것이다④.



圖 4. 明太祖의 龍袍



圖 3. 明世宗의 龍袍

아울러 形態에 있어서도 元來는 中原傳統의 服裝은 角衿右衽이나 隋 唐帝는 北國에서 發祥해 北國의 盤領衣를 中原으로 들여와 그 服裝을 制定하므로써 中原傳統의 角衿과 더불어 流行하였다고 한다. 그렇기 때 문에 龍袍의 形態는 처음부터 右衽盤領이며 窄袖에 그 길이는 무릎과 복사뼈(踝骨)를 지나 땅에 끌리도록 치렁치렁하다^⑤. 또한 龍袍의 色彩에 있어서도 明朝以前에는 黃, 赤兩色을 使用하였고 清代에서는 黃, 赤, 紫, 青等을 使用하였는 바^⑥ 이는 常服이라 하여 折上頭巾에 九環 帶를 띠고 六合鞋을 신었다. 이 制度는 明朝에 이르르면 매우 詳細한 記 錄을 볼 수 있는 바, 明史輿服志에 依하면

첫째, 洪武三年定: 烏紗折角上巾, 盤領窄袖袍, 束帶。

둘째, 永樂二年更定: 冠以烏紗冠之, 折角向上, 其後名 翼善冠

셋째, 嘉靖七年更定: 更名燕弁(服)。寓深宮獨處, 以燕安爲戒之意, 冠

匡如皮弁之制, 冒以烏紗, 分十有二瓣, 各以金線壓之。: 服如古 元(玄) 端之制。色元(玄), 邊緣以青, 兩肩繡日月, 前盤圓龍一 後盤方龍二, 邊加龍文八十一, 領與兩袂(袖頭)共龍五十九, 袂同 前裾齊, 共用龍文四十九, 襯用深衣之制 色黃等^⑦ 名稱自體의 改正으로 부터 많은 變化를 期하게 되는 바, 卽 머리에 쓰는 折上頭巾이 翼善冠으로 改正됨과 아울러^⑧ 下腹部아래에 施文 되었던 龍文은 없어지고 左側아래 단이 割開되었다가 英宗以後로는 龍袍의 形態는 소매가闊袖로變하고 따라서 무늬도 袞 服과같이 日, 月, 星辰, 山, 龍, 華蟲, 宗彝, 藻, 火, 粉米, 黼, 黻, 等 十二章을 施文하였다^⑨. 따라서 清代에 이르르면 清 皇朝通志에 明示된 바와같이

「皇帝龍袍(之二)。色用黃, 棉紗裘隨其時。領袖俱石青片全緣。繡 文……全龍九, 列十二章, 間以五色雲, 領前後正龍各一, 左右及交襟處行 龍各一, 袖端正龍各一。下幅八寶, 立水, 裾左右開라고 한 바와같이 여 기에서 두드러진 것은 前朝것에 비해 龍文이 많이 減少된 것, 그리고 사 이마다 五色구름이 없고, 八寶와 立水의 무늬가 더한점등이다. 또한 現

在 歷史博物館에 所藏된 實物을 觀察하건대 그 模樣에 있어 大襟은 左에 서 右로 傾斜를 이루어 어깨부들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크게 右側에 이르러 드람이 미치게 하였다. 그리고 소매는 어깨에서 漸次 좁혀 袖端에 이르러 게하고, 이어 손등을 덮게 하였는바 이는 마치 그 모양이 말굽과 같다하여 馬蹄袖라 하며 또한 箭袖라고도 稱한다. 따라서 前記한 바와 같이 明 英宗以後에 施文한 十二章文도 볼 수 없으며 다만 清朝以後(皇朝通志) 施文된 무늬 外로 八仙과 吉慶文이 追加되었음을 볼 수 있고, 단추는 布地로 매듭 단추를 단 것도 있으려니와 꽃무늬를 새긴 鍍金製를 使用한 것이 比較的 많은 편이었다.

二、紋樣에 對하여

가, 龍文

龍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기는 殷나라 時代의 甲骨文에서 비롯하여



圖 5. 清代龍袍

殷周의 金屬文字에 많이 나타나는 바 이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 그리고 所地名等으로 表現되었다. 또한 무니로서 보이게 된 것은 殷後期에서 부터였고, 따라서 麒麟과 鳳凰 그리고 거북과 더불어 四靈으로 일컬어 지게까지 되었던 것이다¹⁰⁾. 또한 想像的인 神物로서, 蟲, 魚, 鳥, 獸의 局部狀態를 包含한 固定的인 形態가 아닌 生物界에 包含되지 않는, 崇拜의 對象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며, 特히 宋나라 때 沈括의 著書인 夢溪筆談에 이르기를 실지로 산 용을 본 것 같이 그것은 代表的으로 龍의 神과 靈의 絕對 다른 生物의 追隨를 許諾치 않게 되었다. 그렇기 때 문에 歷代 帝王을 龍에 比喻하였고 따라서 帝王의 御用物에도 龍字를 머리에 넣었으며 龍의 圖案織繡를 한 옷을 龍袍라 불리우게 되었다 한다. 또한 淮南子의 天子訓에서 밝힌 陰陽五行說에 依한 것과 같이 天地萬物은 모두 陰陽으로 構成되고, 水火木金土의 五行中 木火는 陽이며 金水는 陰에 屬하고, 토는 그 中間에 있는 것이다. 方位에 있어서 東은 青龍, 西는 白龍, 南은 赤龍, 北은 玄龍이며, 中央은 黃龍인 것이다. 따라서 「萬物羽毛鱗介皆祖於龍」이라는 말과 같이 龍은 萬物의 根本이란 思想으로 信奉되었던 것이다.

또한 龍의 部分的 形態를 살펴보면

鬚, 머리(頭形)는 鰻面形으로부터 牛面形, 馬面形, 鳥形, 蛇形, 虎形, 童顏形, 豕形, 鹿面形, 獾形等으로 區分되며,

들쭉, 미늘(鱗形)은 渦卷形을 비롯하여 藏手形, 雷文形, 圓形, 人字形, 波形, 雲形, 山形, 菱形, 鯉形 등이 있으며

셋째, 뿔(角形)은 羊角形, 鹿角形 그리고 一角에서 三角으로 나뉘며 넷째, 눈(眼形)은 둥근형에서 三角形 그리고 가는형이 있고

다섯째, 발톱(爪形)은 二爪로부터 三爪, 四爪, 五爪로 나눌 수 있다¹²⁾.

이외에도 귀(耳)와 그리고 머리部分에 火焰文이 裝飾되고 또한 나래(翼), 나 털(毛) 등이 있는바, 이는 周代로부터 清代에 이르기까지 部分的으로 간추려 본 것이다.

이러한 傳說과 傳統을 간직한 龍을 帝王의 衣服무늬로 使用이 되기는 이미 前述한 바와같이 虞舜時代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卽十二章 服을 起點으로 하여 各朝代의 隨意에 따라 造形이 變形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龍袍의 무늬로서 처음 表現되기는 唐高祖(六一八)~六二六在位의 立 像肖像으로 服地는 赤色이고 形態는 袍形이다. 龍의 무늬는 圓形의 團 龍으로 사이에는 구름무늬를 配置하였는바 色彩는 모두 金色이다. 이어 唐太宗(六二七)~六四九在位의 立像肖像是 黃袍이며, 龍의 무늬는 團龍 인바 앞뒤 다리는 各各를씩이고 받튼은 各五爪로서 周圍에는 亦是五色 구름무늬와 머리앞에는 如意珠를 配置하였다. 아울러 龍의 色彩는 青色 이고 그 周圍에는 赤色線을 둘러었다. 그 後 明太祖(一三六八)~一三九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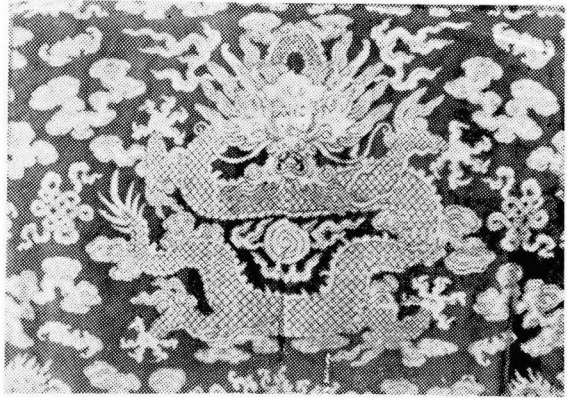


圖 6. 龍袍의 胸部龍文(織繡)



圖 7. 后袍와 刺繡

在位)坐像全身肖像에 依하면 亦是 黃袍에 龍무늬는 五爪蟠龍이다. 이는 明皇帝常服條에 「有折上中. 赤黃蟠龍衫袍, 同於唐制」라 한바와 같이 唐 制를 그대로 承襲하고 있고, 따라서 服地나 製式과 圖飾 모두가 그대로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故宮博物院所藏 帝王肖像에 依하면 明 第八代 英宗(一四五七)~一四六四在位 때부터 龍袍에는 日·月·星辰等 十二章 을 施文하고, 主文인 龍文은 圓形안에 五行에 依한 方位色을 나타내 寫하였음을 觀察할 수 있는바 이는 卽 가슴 中央에는 赤龍을 그 아래에 는 靑龍을 또 그 아래에는 赤龍이다. 그리고 右側 어깨에는 日(月)무늬 에 이어 白龍이며 이를 連한 그 아래 단에는 靑龍과 赤龍順이고, 左側 어깨에는 日(月)무늬에 이어 靑龍이며 이를 連한 그 아래 단에는 赤龍 과 靑龍順인데 이는 모두 한결같이 龍의 머리를 두드러지게 表現하였는

마, 곧 鹿角形兩角에 입을 벌리고 如意珠를 물었으며 몸뚱이는 구름에 싸였고, 아래 部分에는 波濤가 힘차게 일렁이는 場面이다¹³. 또한 清代 龍袍로서 傳存되는 遺物에 依하면 干先 그 服地에서 差가 있는 것 같다 即黃緞을 비롯하여 黃紗, 藍麤紗, 藍緞, 藍綢, 紫紗, 紫綢 麤紗, 朱紅 緞等 多樣하게 分類할 수가 있고, 袍에 施文된 龍文에 있어서도 織繡와 刺繡로 區分되는바 이를 大略 要約하면

첫째, 여름에 입는 홑겹의 龍袍는 大部分이 織繡이나 金絲로 大形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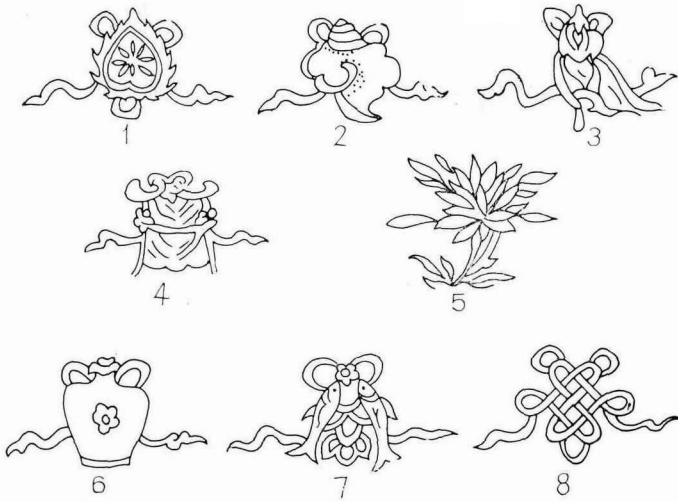


圖 8. 佛家八歡喜吉祥表象

- ① 輪寶
- ② 螺寶
- ③ 傘寶
- ④ 蓋寶
- ⑤ 花寶
- ⑥ 瓶寶
- ⑦ 魚寶
- ⑧ 腸寶

을 刺繡한 것도 있었다.

둘째, 앞받음을 한 겹옷은 바탕무늬는 織繡이고 龍文은 金絲刺繡로 하였다.

셋째, 衣領과 馬蹄袖의 龍文은 大部分이 織繡이다.

넷째, 皇后가 着裝하는 后袍는 바탕무늬나 龍文을 莫論하고 모두 刺繡로 하였다.

또한 龍文의 形態에 있어서도

첫째 衣領前後의 正中에는 蟠龍이고, 그 외는 行龍이다.

둘째, 가슴과 등에는 蟠龍이며(또는 正龍이라고도 함)

셋째, 앞과 뒷단 左右에는 各各 가슴과 등에 있는 龍을 向한 行龍의 姿勢이고,

넷째, 左右어깨에 龍文은 各各 衣領을 向한 行龍의 姿勢이다.

따라서 袍의 呼稱에 있어서도 通常龍文이 있는 것은 龍袍라 하는데, (大概 小形을 除外하고 大形이 여덟이 있을 때) 龍文이 아홉이 있을 때 遇 即 前記八個處 外로 앞자락이 안으로 드러가는 곳에 龍文이 있어도 두 아홉이 되는 데 이러한 것은 九龍袍라고도 한다.

나, 八寶紋

八寶란 佛家の 七寶와 民俗吉祥圖案을 混合해서 使用한 것으로 釋家의 佛經中 無量壽經에는 金·銀·瑠璃·玻璃·瑪瑙·砗磲·珊瑚等 八寶를 말하며, 또 法華經에서는 金·銀·瑪瑙·瑠璃·砗磲·眞珠·玫瑰等을 일컫고, 또한 轉輪聖王은 輪寶·象寶·馬寶·如意珠寶·女寶·將寶·主藏臣寶等의 八寶까지를 指稱하고 있다¹⁴.

한편 閨閣叢書에 依하면 玄黃天符를 비롯하여 玉鷄·穀璧·如意寶珠·紅鞞·玳瑁·琅玕珠·採桑鉤等 八寶까지를 들고, 비록 繡나 그림에 많이 쓰이던 根本과 이름을 모르고 비슷한 것을 끌어다 이름을 붙인다고 하였다¹⁵. 그러나 現在 中華民國 國立歷史博物館에서 研究한 八寶圖 飾文樣에 따르면 輪寶를 비롯하여 螺寶·傘寶·蓋寶·花寶·瓶寶·魚寶·

腸寶等。로 各各分類하고 있다¹⁶。아울러 龍袍에 施紋된 圖飾을 細密히 觀察하건대 八寶紋은 袍全體에 高루 配置되기는 하였으나 다만 袍下幅에 施紋된 平水便에는 없고 그 以上에만이 安配되었다。따라서 한벌 全體에는 반드시 八種을 모두 施文한다는 制限이 없고, 五種 或은 七種으로 各各 다른 數字를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같은 輪寶나 魚寶라 할지라도 圖飾의 模樣이 若干 差異가 있고, 特히 皇后가 着用하는 后袍 등의 紋樣은 織繡가 아닌 原色刺繡이기 때문에 매우 華麗하고 奢侈스런 편이었다。

다, 八仙紋

八仙이란 여덟 神仙을 일컫는 것으로 干先 中國에서 果然 이 여덟 神仙이 存在하였었다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여덟명의 神仙은 漢鍾離, 張果老, 韓湘子, 鐵拐李, 曹國舅, 呂洞賓·藍采和, 何仙姑 등을 말하는데, 元來 이 神話가 제일 처음 나타나기



圖 9. 八仙圖

始作한 것은 元劇에서 이므로 이 神話가 證明이 된 것도 元나라 때 부터인 것이다。따라서 國劇에서의 八仙上壽나 麻姑上壽란 여덟명의 神仙이 모두 登場하나 實際로 이 여덟명의 神仙中 몇명은 거짓이라는 것으로 이 中國文化故事를 通해 이 神仙들의 對한 來歷을 살펴보기로 한다¹⁷。

첫째, 漢鍾離는 地名이지 사람의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다。宣和書譜에 記載된 바에 의하면 唐代的 神仙中 鍾離雲房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權이다。그가 말하기를 「天下都散漢鍾離權」이라 하였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漢鍾離」라고 誤會한 것이라 하며,

둘째, 張果老는 唐代的 方士張果이며, 그는 中條山에 隱居하였던 武則天이 그를 接見할 때 그는 거짓으로 죽은체를 하였다。唐玄宗 開元年間에 사람을 시켜서 그를 京師로 모셔 왔으나 그는 얼마안가 다시 中條山으로 돌아갔다 하며,

셋째, 韓湘子는 바로 韓湘이다。傳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는 唐代的 文人韓愈의 조카이므로 젊었을 때부터 道를 닦았다。淸나라 사람 袁子才가 말하기를 學道한 사람은 韓愈의 다른 하나의 族人이라 했다。韓湘은 唐武宗 會昌三(八四三)年の 進士를 지낸 사람이라 하며,

넷째 鐵拐李라는 사람은 元來부터 없었고 또 이러한 神仙도 없었다。宋史에서는 李八百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나 점름받이는 아니었다 하며, 다섯째, 曹國舅는 宋代 曹太后的 동생이라 한다。그러나 宋史獻太后傳記에 記載된 바에 의하면 曹太后的 동생 曹伶이 神仙이 되었다는 말은 없고, 또한 다른 曹氏姓을 가진 后妃도 仙을 배웠다라는 말은 없으므로 曹國舅라는 사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呂洞賓은 唐代的 사람으로 이름은 岩이고 縣令을 두 번 하였으나 黃巢가 亂을 일으킬 때(八七五) 짐식구하고 모두 終南山으로 移舍를 갔으나 自己 혼자 道를 배워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그는 또한 純陽子, 回道人, 呂祖 등으로 불리워 졌다。

일곱째, 藍采和는 傳해오는 말에 의하면 唐代末年의 사람이라 한다。그는 가끔 바구니를 들고 長安市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어느날 그가 濠

梁酒樓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鶴 한마리가 날라와 그는鶴을 타고 날라갔기 때문에 後에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됐다고 한다. 여덟째 何仙姑는 宋代 사람으로 그녀가 젊었을 때 異人을 만나 그 사람이 주는 북송아를 먹은 後 그녀는 배고프지 않았고, 또한 禍와 福을 먼저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큰집을 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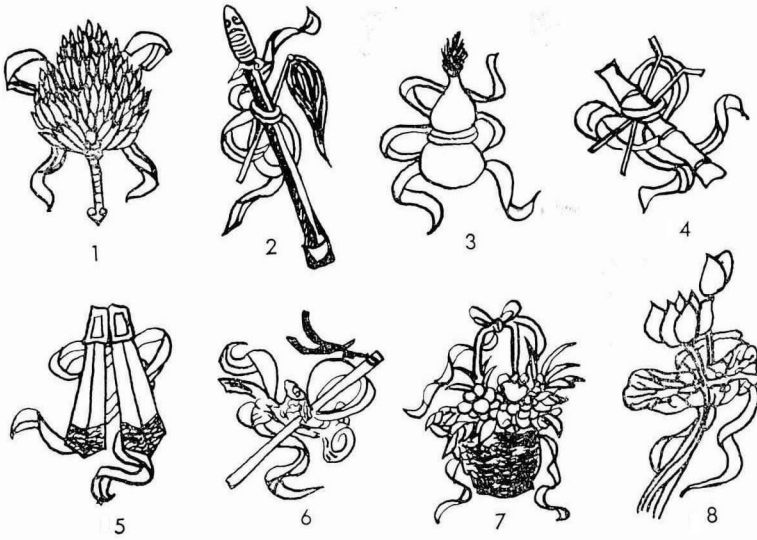


圖 10 八仙祝壽文

- (1) 蒲扇
- (2) 寶劍
- (3) 葫蘆
- (4) 魚鼓
- (5) 簡板
- (6) 玉笛
- (7) 藍子
- (8) 荷花

그녀를 神과 같이 모셨다. 또한 麻姑는 東漢時代의 仙女이다. 傳하는 말에 依하면 江西南城縣 西南의 麻姑山이 바로 麻姑가 道를 얻은 곳이라 한다. 그 山은 道家의 二十八洞天이고 산꼭대기에는 壇이 있다. 顏眞卿이 쓴 麻姑山壇記 碑石이 이곳에 세워졌다. 또한 傳해오는 말에 依하면 東漢의 仙人 王方平이 어느날 蔡經의 집에 가서 麻姑를 보았는데 그녀는 十八~十九歳の 나이로 매우 아름답게 생겼고 그녀의 손(手爪)은 새와 같으며 머리는 쪽을 찼다. 麻姑는 女人들이 生日을 慶祝하는 吉祥神으로 섬겼다 한다.

以上은 八仙과 麻姑에 對한 存在與否를 確認해 본 것이다. 그렇다면 現在 傳存되는 그림이나 國立歷史博物館의 傳存되는 象牙彫刻品(8)들은 그 後 그리거나 彫像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이 八仙과 紋樣에 對한 連關與否는 問題의 八仙을 圖紋化하는 것이 아니라 그 八仙이 手に 들고 있는 物件을 圖飾化하는 것이다. 即漢鍾離의 蒲扇이라든가 張果老의 魚鼓·韓湘子의 玉笛, 呂洞賓의 青峯寶劍·曹國舅의 簡板, 藍采和의 藍子(中有壽桃), 李鐵拐의 葫蘆, 何仙姑의 荷花等 參照圖紋 八仙祝壽文을 圖飾化하여 前述한 八寶와 더불어 混用한 것이다.

라, 海水薑牙紋

清나라 後期 龍袍의 傳存遺物에 나타난 圖飾에 依하면 袍全體의 四分之一에 該當되는 下襪에는 多采斜條文을 交叉하여 裝飾한 것을 立水라 하고, 그 위에 잔잔한 물결을 연상케한 鱗狀紋과 波濤의 紋樣을 하였다. 그리고 前後面 中央과 左右솔기를 連한 下瑞에는 各各 山形과 이를 左右해서 波濤文이 곱게 施文된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를 總稱하여 海水薑牙文이라고 한다. 이 紋樣法은 그 規模가 적어서 그렇지만 양소매 上膊部에도 같은 形態로 施文되었다.

清代의 龍袍나 后袍는 大概 이 製法을 遵守하고 있는데 原色의 境遇는 特히 下襪에 施文되는 多采斜條文은 暈染法에 依해서 織繡나 刺繡를 하였기 때문에 그 模樣이 두드러지게 奢侈스럽다. 即 그 條文마다 진한

색으로부터 漸次 靑은색으로 變하기 때문이다. 또한 平水의 處理도 如意文으로 重復連結하였고, 또한 渦卷文과 물결문니等を 安配하여 매우 華麗한 것을 간추려 본다면 藍緞萬字挑金龍袍(清代龍袍全身圖參照)와 藍紋彩緞金龍袍, 그리고 藍緞紗盤金龍袍等을 들 수 있고, 單色으로는 銀龍袍인바 이는 원바탕색은 藍色이고 무늬는 銀絲로 하였다. 따라서 下襪立水斜條文은 間道式으로 하였고 그外 무늬는 銀絲單色이나 매우 品位 있어 보인다(海水薑牙文織繡圖圖13參照)

마, 吉祥紋

中國은 衣履冠帶之邦이라고 呼稱하리 만큼 衣冠으로 그 사람의 身分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官廳과 民間의 階層도 區分되었다. 또한 面積이 넓고 氣候의 差로 生活風習과 地理環境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입는 被服이나 服地, 形態, 製式이 差가 있었던 것이며 또한 地域性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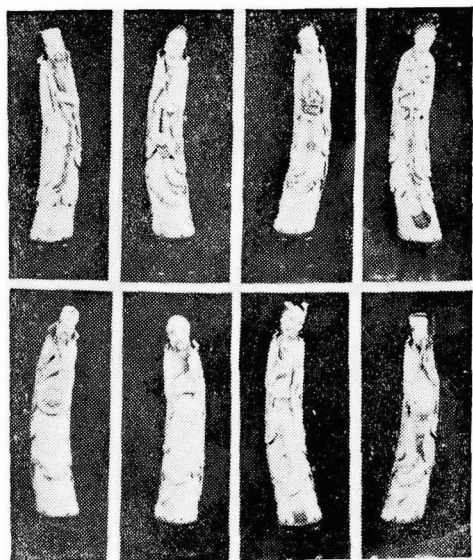


圖 11 八仙彫像(國立歷史博物館所藏)

또한 아름다운 追求하는 心理로 發展하여 色彩에 敏感하고 質優工細·適用이 典邪하였으며, 아울러 織錦

은 養蠶練絲以後부터 이에 從事하여 三國時代의 諸葛亮이 蜀에게 失敗한 후 織錦을 大量輸出하여 國庫를 補充하였다. 함은 너무나도 有名하다. 그後 이 織錦은 날로 發展하여 宋나라 元豐年間에는 錦院이 設置되었고 따라서 當時의 錦을 크게 네가지로 分類할 수가 있는바, 即「上貢錦」「官告錦」「臣僚襖子錦」「廣西錦」等인바 이는 하나 하나 모두 模樣이 多樣했으며 그 色彩나 紋飾에 있어서도 「疊勝」「方勝」「柿蒂」「龍麟」「龜文」「球文」「荷蓮」 또는 「疊量」을 加하여 繁縟의 規則으로 發展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紋飾에는 後代에 이르면서 漸次 吉慶圖飾을 添加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를 다음과같이 略述하여 보기로 한다.

1. 雲文

구름은 千變萬化하여 그 形態는 無窮無盡하고 永遠함을 象徵하는 것이다. 이 구름의 무늬를 圖飾化하기는 周나라 以前에 이미 使用하였고 皇帝의 袍服에 紋樣化되기는 唐高祖의 立像胸背의 雲龍文에서 비롯되는 바¹⁹⁾ 이는 그 後 清代에 이르기까지 龍袍에서는 빼어 놓을 수 없는 紋樣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傳存되는 實物에 依하면 袍全體에 即 海水薑牙文 上部로는 全體적으로 다른 吉慶文과 더불어 高루 施文되었는바 이는 單色과 原色으로 區分處理되었는데 特別 原色の 境遇에는 暈染法을 活用한 까닭으로 그 아름다운 무늬가 두드러지게 돋보인다. 따라서 더욱 奢侈스러운 것은 皇后用 后袍인데 이 皇后用 后袍는 바탕색이 빨강색인데다 色感도 玲瓏한 五色雲을 配置하여 그 아름다운 果然 極致에 이른다고 表現하고 싶다. 形態面에 있어서도 너무나 多樣할 뿐만 아니라 같은 것 같아도 細密히 觀察하면 어디엔가 異形的인 것이 發見되며 다른 吉祥文과의 調和를 이루기에 努力한 痕跡이 如實히 느껴진다.

2. 萬字文

卍字는 梵語 即印度의 옛 글자로서 周의 則天武后(六八四~七〇四) 때에 漢字로 넓이 使用되어 왔으며, 이 글씨의 뜻은 佛心에서 나타나나서는 吉祥萬德을 뜻하기도 한다. 卍字文을 獨立的인 形態로 무늬화하기도 하지만 十字의 四端에서 從橫으로 線을 延長하여 이를 서로 連結하므로서

長脚萬字文 또는 萬錦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것을 一名 「萬不到頭」 「富貴斷頭」라고 하는바 이 長脚萬字는 無限한 幸福과 不斷長久를 뜻하는 것이다²⁰. 고로 이는 佛敎思想의 佛心에서 表現된 吉祥萬德의 希求心에서 發願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今般出品된 龍袍中에는 바탕 무늬를 萬字文을 主題로 한것은 단 한벌에 不過하다. 더우기 그 名稱에 있어서도 藍緞萬字挑金龍袍로서 下襪海水蓋牙部分을 除外한 上部는 華麗하게도 金色으로 袍全體에 高루施文되었고 등성음성 白鶴과 雲文을 비롯한 吉祥文이 高루 配置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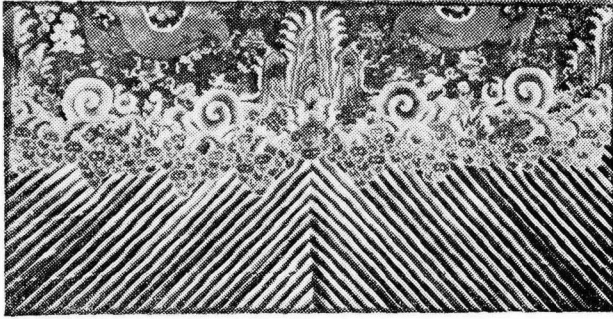


圖 12. 海水蓋牙文(刺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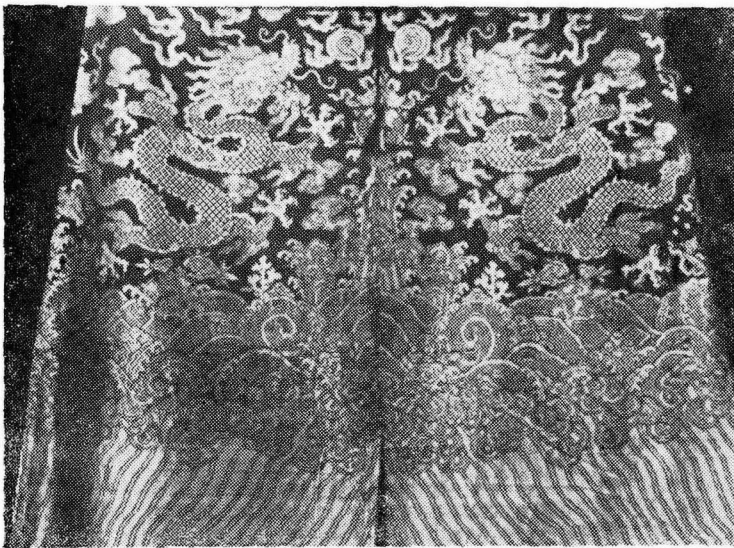


圖 13. 海水蓋牙文(織繡)

드、蝙蝠文

박쥐는 伏翼、또는 飛鼠、仙鼠、天鼠라고도 불리우며 그 壽를 千歲以上을 누린다고도 한다. 또한 強한 繁殖性과 五福의 象徴이라고도 하는 바 卽 長壽、富貴、康寧、多男을 念願하는 뜻에서 많은 아낌을 받았고 特히 박쥐가 幸福의 象徴으로 풀이 되게된 까닭은 「蝠」字와 「福」字의 音韻이 같기 때문인 것으로 이는 裕福의 뜻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뜻이 있어서인지 龍袍全體에는 原色이나 單色袍를 莫論하고 飛舞狀態의 박쥐무늬 卽 오른나래는 퍼고 왼쪽나래는 안으로 오무린양 또는 그 反對의 形狀이나 或은 양나래를 모두 활짝 편 形態等 여러 模樣으로 表現한 모습은 마치 實物의 動作을 仿佛케 하고 있으며 特히 龍文이 있는 周圍는 四方에서 龍을 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르、仙鶴文

예로부터 鶴은 그 壽命이 千年以上을 壽한다 하여 長壽의 象徴으로 일컬어 왔으며, 또한 仙鶴이라고도 比喻하기도 하였다. 또한 祝福과 貴人、豐饒한 幸運이 깃든다 하여 모든 器物이나 圖飾에도 널리 活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仙鶴을 衣服의 무늬로 活用한 時機는 詳考할수 없으나 官吏의 品階 花樣으로 仙鶴의 무늬를 公式으로 圖飾化하기는 明 洪武二十六年(一三九三) 百官의 常服을 制定할 즈음 文官一品官의 補卽 胸背의 花樣에서 비롯된 것이다²¹. 따라서 帝王의 龍袍에 圖飾으로 活用되기로 清代以後로 짐작이 가는 바 이는 勿論 遺物이나 文獻上으로 調査의 不足탕도 있으려니와 龍袍全體에 圖

飾化되기란 清代以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立證이 될적한 것이다. 더
우기 傳存되는 龍袍에 依하면 單色이나 原色 龍袍中 海水薑牙文의 平水위
에는 前後面 모두 左右에 날아 갈듯한 姿勢 卽 나래를 左右로 띄고한
쪽 다리 는 든 모양으로 施文되었으며 또한 가슴과 등을 中心하여 左右
에 配置한 것 등을 볼 수 있는 바이다.

口、火文

불 무늬는 冕服 紋樣中의 하나로 매우 그 使用年代는 悠遠한 것이다.
특히 이는 「照耀光輝」라 하여 밝게 빛난다는 뜻으로 帝王의 冕服十二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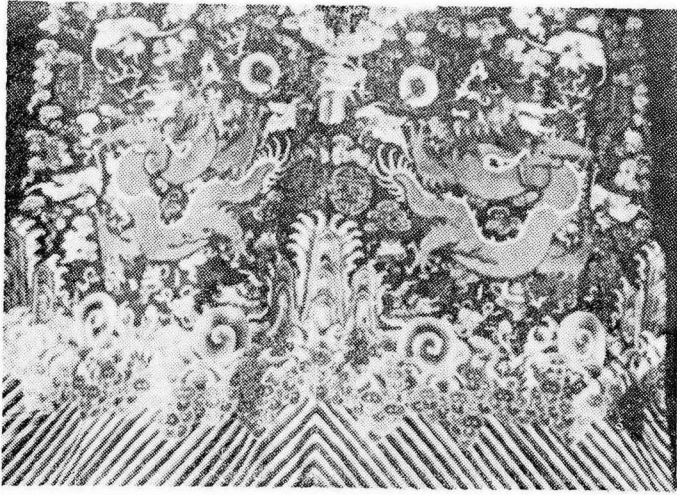


圖 14. 全體刺繡龍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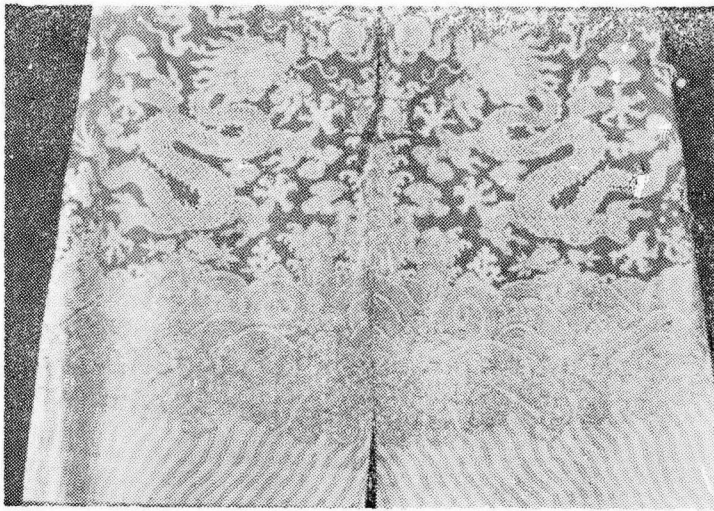


圖 15. 全體織袞龍袍

으로 부터三公의 九章과 九卿의 七章에 이르기까지 모두 圖飾化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²²⁾. 더우기 冕服以外에 龍袍에도 불꽃무늬가 圖飾化되
기는 清代龍袍에 두드러지게 表現되는바 이는 가슴과 등의 正龍 머리
에는 火焰文이 施文되었고 따라서 다른 龍에도 불무늬를 걸드린것을 볼
수가 있는 바이다.

以上은 雲文으로부터 불무늬에 이르기까지의 簡單한 傳說과 龍袍에
施文된 무늬의 狀態를 簡略히 紹介한 것에 不過하다. 따라서 이 무늬의
에도 戟文을 비롯하여 磬文、字文等 그 무늬마다 지닌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後日로 期約한다.

三、刺繡에 對하여

國立歷史博物館에서 提供한 刺
繡部分說明資料에 依하면 刺繡
藝術은 이미 一萬年以前에 存在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新石器時
代의 洞窟에서 發掘한 骨針이 初
步의 이었다 하며, 周代初期에는
楚莊王이 그의 愛馬에게 錦衣를
입혔다 한다. 그後 戰國時代에
는 더한층 發展하였음이 史書를
通해 立證되며, 漢代以後의 刺繡
는 衣飾以外에도 應用되어 雲紋、
峰岳、鳳凰、野戲、行獵이 主題
로 되었고, 唐代刺繡에는 皇家崇
佛을 表現하고, 圖案의 描寫와
背景을 簡單한 鍾縫을 利用하였
다 한다. 그리고 山水와 書法等

의 純裝飾性 刺繡는 宋代에 와서야 비로소 流行하였으며 織繡와 平行과 같은 緞面針法도 이때에 이루어졌고, 明代에는 顧繡로 有名하였는바 그들은 古典美의 色彩美 또는 生動的인 人物로서 사람들에게 깊은 愛護를 주었다. 그後 刺繡는 清代에 이르러 더욱 發展되었는바 中 蘇州 湖南 北平이 代表的이고, 더욱 널리 잘 알려진 것은 「蘇繡」와 「湘繡」 그리고 京繡인 것이다. 明나라의 「顧繡」와 淸나라의 「蘇繡」는 同一한 地區였다. 따라서 風格과 技法도 大概 비슷하고 「湘繡」는 「蘇繡」보다 精巧하였다. 한편 龍袍에 施文된 繡의 境遇는 勿論 時代에 따라 差가 있을 것이나 干先 傳存되는 肖像에 나타난바에 依하면 唐高祖以後 明景宗에 이르기까지는 다만 胸背를 비롯하여 兩肩 그리고 아래 단 좌우에 團龍을 施文할 程度이지 袍全體에는 미치지 않은것을 觀察할 수 있는 바이고, 따라서 明英宗以後부터는 龍袍에도 이제까지 袞服에 만이 施文하던 十二章紋이 施文되고 있음은 이미 前述한 바와 같다²³⁾.

따라서 清代의 龍袍實物을 調査한바에 依하면 龍文이 增加할 뿐만 아니라 服地空間을 吉慶紋으로 完全히 메운상태 인데 이를 그 類型別로 區分한다면

첫째, 袍全體를 完全히 原色으로 刺繡한것,

둘째, 龍文만은 刺繡로하고 그 外空間무늬는 織繡로한것

셋째, 全體 무늬를 織繡로한것 등인바 첫째의 境遇는 主 무늬인 龍文은 金絲로 하고, 其外에는 五色絲로 吉慶紋樣 그 物體마다를 暈染法에 依해 精巧한 솜씨로 刺繡하여 마치 生動하는 感을 느끼게 하며, 둘째는 龍文을 除外한 空間 무늬 卽 구름을 비롯한 各種 吉慶紋은 모두 織繡이고 龍文만은 刺繡를 하였으며, 셋째는 袍 무늬 全體를 織繡로 한것 등인데 이는 어름용으로 여겨지는 好景의 境遇가 大部分이고, 첫째 둘째의 境遇는 好景도 있었으나 比較的 많이 있었다. 또한 技法 上에 있어서도 主紋樣인 龍文은 寸수를 놓고 그위에 金絲로 繡를 놓아 도드라진 모양이어서 매우 躍動的으로 보이며 그외의 吉慶紋도 物體에 따라 均衡된 配色으로 刺繡한 까닭으로 한층 華麗하게 보인다.

맺는말

예로부터 傳해 오는 말에 따르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가 졌다하여 天圓地方이라 하였고, 皇帝를 일컬어 하늘의 아들 즉 天子라 했으며 또한 龍에 比喩하기도 하였다.

龍袍制度가 施行되기는 唐高祖即位年(六一八)으로부터 淸末宣統三(一九一一年)에 이르기까지 約一三九三年餘의 悠遠한 歷史를 누린 셈이다. 最初에는 皇帝를 神聖視하는 意識에서 單純한 龍文만을 主文으로 하였으나 明朝以後 織造術과 刺繡의 技能이 漸次 熟達됨에 따라 그 무늬는 多樣化되었고 또한 實用性에서 奢侈와 裝飾으로 變貌한 痕跡이 보여지고 있는 바 이는 前記한 바와같이 明英宗(重祚)以後부터는 十二章이 施文되고 따라서 窄袖이던 袍는 闊袖로 改制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清代 龍袍의 實物을 觀察하건대 龍文이 두드러지게 增飾할뿐만 아니라 袍全體에는 雲文과 더불어 八寶·八仙文을 비롯하여 各種 吉慶文이 빈틈없이 고루 施文되고 있다, 이 制度는 國民政府가 建國(一九一一)된 後에도 皇制는 비록 廢止되었으나 服飾制度는 옛 痕跡을 그대로 傳存하게 되었으니 民國三年八月 袁世凱政府가 出帆하자 冠服制度에서 비록 形態는 다르다 할지라도 다시 十二章의 日, 月, 星辰, 山 龍 등의 무늬를 施文한 官服制度가 다시 制定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둘이켜 보건대 이러한 制度는 地域的으로 尠大한 大陸을 形成한 까닭으로 그 周圍에 散在한 群少國에 미친 影響은 實로 不少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나라 나름대로의 獨創的인 眞意에 副應한 類似制度였음은 史書나 遺物을 通해 보더라도 짐작이 갈만한 事實이다. 따라서 本人이 敢히 이 問題를 言及함은 다만 出品된 遺物을 整理하고 이 問題에 關心을 가진 분들에게 다소 보탬이 되고 싶은 欲望에서 임을 밝히며 先學의 많은 叱正을 바라며 拙文을 맺는다.

註

- ① 王宇清著 龍袍 國立歷史博物館刊
(中華民國六十五年十月) 序說에서
- ② 孫昌衍著 尙書今古文註疏卷二
- ③ 前揭註一龍袍 第四說衾衣條
- ④ 第三說袍條
- ⑤ 故宮圖像選萃 國立故宮博物院(中華民國六十年十二月刊)
圖版第十二唐高祖立像圖版第十三唐太宗立像參照
- ⑥ 前揭註一龍袍 第五說龍袍條
- ⑦ 前揭
- ⑧ 折上頭巾은 唐太宗時代に 創作하여 貞觀八(六三四)年五月七日 太宗이 처음으로 使用하였고 其後永樂二(一四〇四)年 更定時 翼善冠으로 改名하였다
- ⑨ 國立故宮博物院所藏 明宮舊藏明代帝王肖像中 英宗으로 부터 九帝一王이 모두 袞衣와 같이 十二章文이 黃龍袍에 施文되었다(王宇清著龍袍 第五龍袍說에서)
- ⑩ 渡邊素舟著(東洋文様史宮山房昭和四十六年四月三十日刊)
第三節參照
- ⑪ 前揭 第三節參照
- ⑫ 前揭 第八節 龍 參照
- ⑬ 故宮圖像選萃(國立故宮博物院刊)
圖版第十二、十三、肖像參照
- ⑭ 佛敎辭典
- ⑮ 鄭良婉 譯註閩閩叢書 八寶條 參照
- ⑯ 國立歷史博物館 研究組編輯 林淑心先生이 送付한 佛家八歡喜吉祥圖에 依한다. [BUSHELL(CHINESE ART V2)]
- ⑰ 李甲孚著(中國文化故事 民國六十五年九月) 第二集 中國古代的 神話中 八仙中 有眞有假條參照(이 故事集은 私立實踐家政專科學校 蘇月梅教授가 送付한 것이다)
- ⑱ 八仙象牙彫像은 現在國立歷史博物館에 所藏하고 있는 것으로 前記 林淑心先生이 寫眞으로 送付해 준 것이다.
- ⑲ 雲文을 龍袍에 처음 使用한 時期를 唐高祖로 推定하는 것은 傳存肖像으로는

그의 것이 가장 오래된 까닭이며 또한 그袍에 雲龍文이 施文되었기 때문이다.

- ⑳ 岡登貞治著(文様の事典 東京堂 一九六八年刊)
- ㉑ 王宇清著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編印會刊 中華民國六十四年九月) 第六章 臣庶冠服條 參照
- ㉒ 前揭 第二節 參照
- ㉓ 故宮圖像選萃 肖像에 依하면 龍袍에는 團龍이 施文되었고 따라서 王宇清著 龍袍에도 이는 強調된 事項이다.

(文化財專門委員)